

‘일하고 싶은 광주 만들기’ 시민원탁토론

오늘 DJ센터서 광주일자리 민·관·산 협의의 장 마련

청년·여성·노인·장애인 4개 분야 200명 정책 모색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 업계 등이 뜻을 모은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합작 공장 설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관·산 협업의 장이 마련된다.

광주시는 11일 “지역 일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2018 광주 일자리 토론회’”이 오는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경제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시민, 청년,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신하고 의미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200인 시민원탁토론 ▲광주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토론회로 진행된다.

“우리가 만드는 일하고 싶은 광주”를 주제로 진행되는 200인 시민원탁토론에서는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4개 분야에 200명의 시민이 토론자로 참여해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은다.

퍼실리테이터(전문 회의진행자)의 주

도로 10명씩 조를 이뤄 모두 20개조가 토론한 뒤 도출된 정책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공유하며 우수 정책은 광주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 200인 원탁토론에는 광주여성재단,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시장에인종합복지관, 광주문화재단,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기관·단체에서 참여해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4개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활발하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 200인 원탁토론을 통해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동안 한편에서는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어 ‘광주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서는 다국적 기업 취업 커뮤

니티 기업인 Curiosity Project Team 김조엘 대표와 IBM B2B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IBM KOREA 조윤성 영업과장이 특강을 한다.

원탁토론과 멘토링 콘서트에 이어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 토론회도 열린다. 네트워크 토론회에서는 유관기관별 일자리지원사업을 설명하고, 기관별 협업을 통한 일자리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 기관의 노후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현실적이고 참신한 의견과 일자리 발전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저소득 금융소외계층 지원 나선다

‘신용 서포터즈’ 발대식

광주시 북구가 가계부채·장기 소액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12일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복지담당 공무원과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신용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서포터즈는 북구에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저소득 금융소외계층(2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소외계층 자활복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민금융 기본소양 교육을 시작으로 기초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상담을 통한 금융소외계층발굴, 건전한 금융생활 홍보캠페인 활동과 불법사금융 광고 단속 등 금융소외계층의 제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제기 의지는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캄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기초수급 기준 완화...1월 사전 접수

670여 가구에 안내서 발송

광주시 서구는 11일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복지사각지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신청한 가구의 부양의무자 세대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지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와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배제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70여 가구에 사전 신청 안내가 발송됐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몰라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구, 혁신도시 전략과제 발굴 TF팀 가동

연말까지 시행계획 수립

광주시 남구가 정부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남구 특성에 맞는 전략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TF팀(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황봉주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27명이 참석한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발굴 회의’가 열렸다.

앞서 남구는 지난 10월에 황봉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구청 내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으며, TF팀은 ▲총괄 분과 ▲지역협력 분과 ▲경제 분과 ▲지역개발 분과 ▲문화관광 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발전계획과 관련한 41개 사업 중 남구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TF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남구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전략과제를 확정하고 전략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남구와 빛가람 공동 혁신도시간 상생발전을 이끄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발전계획을 검토한 결과 남구와 연계 가능한 사업은 지역발전 거점화 및 정주환경 조성, 스마트 시티 구축,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 24개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건축물 녹색 설계기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광주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 부분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녹색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11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녹색건축물은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각종 녹색·에너지 인증의 권장대상인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세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고시안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설계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비주거 500㎡ 이상, 주거 30세대 이상의 신규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시행일부터 인·허가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분야의 설계기준 적용 검토서를 인·허가청에 제출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양동시장역에 사회적경제 전시관 개관 광주시시설도시공사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은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역에 ‘사회적경제 전시관’을 개관했다. ‘사회적경제 전시관’은 양동시장역 지하1층 대합실에 17㎡규모로 사회적 경제 기본 가치를 알리는 홍보판과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전시대를 설치, 시민들에게 상생과 나눔의 삶을 안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광주시시설도시공사 제공>

광주시 ‘스마트 에너지 실증산단 조성사업’ 탄력

산자부 공모 과제 2건 선정

광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모 과제에 2건 선정돼 ‘스마트 에너지 실증산단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시장 서비스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전력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개발·검증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6억이며, 올해부터 3년간 국비 59억원, 시비 6억원, 민자 11억원이

투입되며, 시비는 광주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의 중개거래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력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개발·검증사업’도 3년간 103억3000만원(국비85억원·민자18억30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시장 서비스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과 연계 활용하고 ‘스마트에너지실증산단 조성사업’과 연동해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선7기 공약과제인 ‘스마트에너지 실증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한전, 한전KPS, 한전KDN과 한국전기연구원, 한

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0개 기관 30명으로 구성했다. ‘스마트에너지 시티조성사업’은 3단계로 진행키로 하고, 1단계에서는 ‘스마트에너지시티 기술개발도시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제 대응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시의 이미지로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또 광주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일우 에너지IT 기술연구실장과 이병택 에너지시스템연구실장이 기획한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 삼거리 코너 건물,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